

大學語文選

5

白話本唐宋散文選

許璧譯註

延世大學校 出版部

大學語文選 5
白話本唐宋散文選

1981年4月10日 印刷

1981年4月15日 發行

譯註者 許 璧

發行 延世大學校出版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新村洞 134

32-6201(直)
電話 33-0131(代) } (交) 2554-56
32-0161(代)

對 替 口 座 667055

登 錄 1955年10月13日第7-106號

印刷 高麗書籍株式會社

YUP-164

<정가 2,000원>

大 學 語 文 選

5

白話本唐宋散文選

許 璧 譯註

延世大學校 出版部

序 文

이 책은 최근 수 년간 연세 대학에서 대학생과 일반 교양인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시키고 있는名著, 敎養書籍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영어, 독어, 불어 및 중국어 등 외국관계 서적을 주서 번역하여 펴내고 있는「大學語文選」기운데「魯迅의 故郷 外數篇」에 이어 세번째로 나온中國語관계 번역서이다.

中國文學 전반을 通해 볼 때 散文은 그 淵源이 4千餘年前인 夏代以前까지 거슬러 올라가 韻文과 더불어 文學史上 重要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後世文學에 끼친 영향이 실로 큰 것이다.

中國의 散文發展過程을 살펴볼 때 春秋戰國時代에 左傳과 孟子를 비롯한 諸子百家들의 심오하고 풍부한 思想이 담겨진 간결하면서도 조리정연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이루어진 作品들이 散文체제의 기반을 확고하게 수립해 놓은데 이어 漢代에 와서는 뛰어난 文章力을 발휘하여 神出鬼沒하는 名作을 수 없이 남긴 司馬遷을 비롯한 많은 作家들이 文學을 爲한 文學時代의 散文으로 先秦散文을 繼承發展시켜 오나가 唐宋兩代에 이르러서는 韓愈와 柳宗元等 이른바 唐宋八大家들이 出現하여 散文의 極盛時代를 이루어 꽃을 피우게 되어 明清 散文으로 이어지는 中國散文의 主流를 굳혀 놓은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作品은 韓愈의 進學解等 5篇과 柳宗元의 捕蛇者說外 2篇, 蘇軾의 前, 後赤壁賦 2篇, 蘇轍의 東軒記外 1篇, 蘇洵의 上, 下諫論等 4篇, 歐陽修의 朋黨論外 3篇, 王

安石의 里仁爲美等 2篇, 그리고 曾鞏의 送江任序 外 1篇 等 唐宋八大家의 文章과 司馬光의 論東漢風俗等 2篇, 杜牧의 罪言外 1篇, 李白의 蜀道難等 2篇 및 杜光庭의 虬髯客傳, 李華의 弔古戰場文, 孔稚圭의 北山移文, 李翱의 楊烈婦傳, 劉禹錫의 陋室銘, 周敦頤의 愛蓮說 各 1篇等 唐宋兩代에 걸친 序, 解, 說, 記, 論, 銘賦等 各種文體를 망라한 總 36篇의 珠玉 같은 文章을 古今文選에 白話文으로 번역되어 실려있는 것을 업선하여 주역했다.

우리는 여기에 수록된 作品들을 通하여 中國文章의 眞髓를 맛보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中國古代社會의 各種 文物制度等 선반적인 社會상을 파악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줄 안다. 自古로 中國의 文人, 政治家는 물론 一般知識人들 사이에 孟子等 先秦散文에서 倫理思想과 治國之道까지 배워 읽혀 왔으며 특히 韓愈等 八大家들의 文章은 지금까지도 모든 中國人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글들이 오늘날 우리들과는 비록 時代的으로나 空間的으로 差異가 없지 않으나 共感을 줄 수 있는것으로 學問이나 政治에 뜻을 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中國語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과 中國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비록 주역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기 바란다.

1981년 1월

許 璧

目 次

1. 進學解……………韓 愈…………… 9
2. 師 說……………韓 愈……………15
3. 原 道……………韓 愈……………18
4. 送孟東野序……………韓 愈……………24
5. 祭十二郎文……………韓 愈……………30
6. 種樹郭崇駝傳……………柳宗元……………36
7. 捕蛇者說……………柳宗元……………40
8. 始得西山宴遊記……………柳宗元……………43
9. 赤壁賦……………蘇 軾……………46
10. 後赤壁賦……………蘇 軾……………50
11. 東軒記……………蘇 轍……………52
12. 武昌九曲亭記……………蘇 轍……………56
13. 贈黎安二生序……………曾 鞏……………59
14. 送江任序……………曾 鞏……………62
15. 答劉蒙書……………司馬光……………65
16. 論東漢風俗……………司馬光……………70
17. 遊褒禪山記……………王安石……………75
18. 里仁爲美……………王安石……………78
19. 醉翁亭記……………歐陽修……………81
20. 縱囚論……………歐陽修……………84
21. 朋黨論……………歐陽修……………87

22. 秋聲賦……………歐陽修……………91
23. 六國……………蘇洵……………95
24. 諫論上……………蘇洵……………98
25. 諫論下……………蘇洵……………104
26. 心術……………蘇洵……………107
27. 虬髯客傳……………杜光庭……………111
28. 阿房宮賦……………杜牧……………120
29. 罪言……………杜牧……………123
30. 蜀道難……………李白……………128
31. 春夜宴桃李園序……………李白……………130
32. 弔古戰場文……………李華……………132
33. 北山移文……………孔稚圭……………138
34. 楊烈婦傳……………李翱……………142
35. 陋室銘……………劉禹錫……………146
36. 愛蓮說……………周敦頤……………147

白話本唐宋散文選

□ 1 □

進學解¹

韓 愈²⁾

國子先生³⁾, 早晨到太學裏, 召集學生們站在館下, 教訓他們說...「學業的精進, 由於⁴⁾勤勉, 荒廢由於嬉戲; 德行的成就, 由於深思, 敗壞由於隨便. 現在我們遇到了

1) 進學解: 이 글은 韓愈가 44세 되던 뒤에 지은 것으로 新舊唐書의 韓愈傳에 全文이 收錄되어 있으며 弟子·학생들에게 하문을 권장한 글이다. 韓愈는 唐憲宗元和 9년에 國子博士라는 직에 있다가 元和 2년에는 東都에 교수로 임명되었고 6년에는 方員外郎직에 이르렀다가 7년에 나사 극지낙사, 그후에는 四門學의 박사가 되었다. 元和 8年인 西紀 812年 이후에는 여러번 좌천되어 이 글을 지어가지고 學識이豊富하면서도 당시에 重되지 않는 不滿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外廷사들은 韓愈의 탁월함을 인정하기는 하던서도 여전히 그를 重用하지는 않았다 對話形式의 文體를 가지고 韓愈 자신의 不遇함을 辯解한 글로써 韓愈는 韓愈에 가까운 특이한 글이며 古文은 古今文選 224쪽에 수록된 "역언이다.

2) 韓愈: 字는 退之, 唐의 河東(晉陽)人. 貞元 8년에 進士가 되고 14년에는 四門博士가 되었으며 國子博士, 太子右庶子等 직을 역임하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형수인 鄭氏에게서 양육되었지만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四書三經을 물론 諸子百家等 先秦古文에 通達하였고 佛敎의 道를 밝히는데 큰 뜻을 두어 마침내 大文藝家가 되었다. 領代 이후 六朝에 이르는 수백년동안 內容이 없고 形式에만 치우었던 駢儷體의 文體를 배격하고 內容 즉 思想이 들어있는 文章을 쓰자고 提倡한 所謂 古文運動의 主要者가 되었다. 唐宋兩代에 걸쳐 활발하게 展開되

聖君·賢相，治理國家的施設一切完備：除去凶惡不正的人，提拔採用英俊賢良；有一點好處的就被錄取，有一技之長的沒有不用；搜羅挑選，撇開缺點，表揚長處，只有僥倖被選上的，哪能說有真好而不顯揚的呢？諸位只怕學業不能精，不怕主管看不明；只怕德行修不成，不怕主管不公平。

話還沒說完，學生行列裏有人笑着說：「先生騙我們哪！我們跟着先生，到現在已經好幾年了，先生嘴裏不停地念着六經⁵⁾的文章，手裏不住地翻着百家的書籍；記事的書一定要抓住綱要，言論的書一定要探究深意；食多沒有够，大的小的都不拋棄；白天完了，夜裏熬燈油繼續幹⁶⁾，常常整年不停地用功，先生對於學業，可以說是勤勉了！反抗邪說，排斥佛教·道教；補充儒學的缺點漏洞⁷⁾，發揚深妙隱微的道理；找出暗昧將絕的道術，獨自多方面追求，繼承遠古的聖賢；擋住橫行的水使向東流，挽回已倒

었으며 동시에 中國文學史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이러한 古文運動은 많은 호응자를 따르게 하였고 그의 散文은 唐·宋兩代를 통하여 타의 추종을 不許할 程度로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뛰어 나다고 評價되고 있다. 그의 著作인 韓昌黎集四十卷이 世傳되고 있다.

- 3) 國子先生：韓은 唐·元和 7年에 國子博士가 되었었는데 「國子」란 皇太子와 太子를 가르침은 물론 貴族의 子弟와 民間의 秀才들을 가르치는 大學을 國子監이라 하였고 여기의 敎수를 「國子 박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國子先生」이란 國子監의 敎수인 韓을 自身을 指稱한 것이다.
- 4) 由於：~에(으로)말미암아, ~에 기인하다. ~때문에.
- 5) 六經：易, 禮, 樂, 詩, 書. 春秋를 말하는 것이며 六藝라고도 부름.
- 6) 夜裏熬燈油繼續幹：밤에도 등불을 부치고 날이 밝을때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는 뜻.
- 7) 漏洞：1) 破洞·2) 指言語事情破綻.

의 대波浪: 先生對於儒家, 可以說是有功勞了! 埋頭在典籍的香味裏, 吸收了多少精華; 作成文章, 著成書, 堆滿了屋子; 往上說, 學虞書·夏書의 廣大沒有邊際; 學周書大誥⁸⁾·康誥⁹⁾, 商書盤庚¹⁰⁾ 等篇의 音節艱澀; 學春秋¹¹⁾ 的 謹慎嚴正, 學左傳¹²⁾ 的 浮虛誇大; 學易經¹³⁾ 的 神奇而可法, 學詩經¹⁴⁾ 的 正派而華麗; 以下研究莊子和離騷¹⁵⁾, 太史公의 史記¹⁶⁾, 以及司馬相如¹⁷⁾·揚子雲¹⁸⁾ 的著作, 尋求他們格調不同, 一樣巧妙的所在: 先生對於文章, 可以說是內容豐富, 體式豪放了! 年輕的時候, 就

8) 大誥: 周代의 告示文.

9) 康誥: 周代의 告示文.

10) 盤庚: 殷代의 天子인 盤庚이 國民들에게 告한 文章으로 尙書에 出現.

11) 春秋: 魯나라 陰公에서 哀公에 이르는 12代 242年間의 史蹟을 記錄한 歷史書로 魯의 史官의 手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孔子가 筆冊하였음.

12) 左傳: 戰國時代 左丘明이 지은 史記 "左氏春秋" 或은 「左氏傳」이라고도 부르는 史書.

13) 易經: 周易의 別名.

14) 詩經: 周代의 詩 305편을 集大成한 詩集.

15) 離騷: 楚나라 愛國詩人인 屈原의 作品으로 屈原이 小人들의 讒언때문에 추방당함에 苦痛을 하면서도 君王과 國사를 걱정하며 지은 詩篇으로 楚辭 全篇을 通해볼때 屈原의 代表作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16) 太史公의 史記: 太史公은 司馬遷 自身이며 그가 지은 歷史書 즉 中國正史의 셋째권인 史記 130卷을 말하는 것이다.

17) 司馬相如: 字는 長門, 漢, 成都사람. 漢武帝때 사람으로 官은 孝文國令에 까지 이르렀으며 賦에 能하며 그의 子虛賦나 上林賦, 大人賦等은 漢賦의 代表作이라고 까지 높이 評價되고 있는 우수작품들이다.

18) 揚子雲: 子雲은 揚雄의 字로 漢代 成都人이며 博學深思하고 文章이 뛰어나 특히 賦作家로 有名하다. 漢代 成帝때 사람으로 甘泉賦, 河東賦, 長揚賦等이 7의 代表作이라 볼 수 있고 太玄 法言等의 著書가 世傳되고 있다.

知道求學，作事又勇敢；長大了通達道術，到處都適合：先生對於做人，可以說是修養到家了！然而在公的方面，不能得人信任，私的方面，不能得朋友幫助，進不是退不是¹⁹⁾，一動就錯；短時間做御史，就被放逐到南蠻地方；做了三年博士²⁰⁾，閒散着顯不出成績：命運之神和仇敵正在合謀，失敗不知道在甚麼時候！碰到溫暖的冬天，兒子還凍得叫；遇着豐收的年月，妻子還餓得哭，頭髮脫了，牙齒掉了，就是到了死，學問文章有甚麼用呢？現在先生不知道憂慮這些，反而教人家這樣！」

先生說：「唉，你到前面來！大的木頭做梁，小的木頭做椽子²¹⁾，柱子上的墊木·梁上的短柱·門臼·門檻²²⁾·門插關兒·門柱，各有適當的材料；用以造成房子，是木匠的巧妙哇。地榆·硃砂²³⁾·天麻²⁴⁾·青芝²⁵⁾·牛蒡²⁶⁾·馬勃²⁷⁾·破鼓皮²⁸⁾等一起收藏，都等着用，這是醫師的好處哇·用人明智，選拔公道，巧的拙的都收進去，緩慢煩

19) 進不是退不是：앞으로 전진해도 아니고 뒤로 후퇴해도 않된다는 뜻으로 進退가 곤란함을 비유.

20) 做了三年博士：3年동안 博士라는 公職生活를 하였다는 뜻인데 韓愈가 元和 4年6월에 博士직에 있다가 元和 4年6월에 博士직을 떠났었다.

21) 椽子：서까래.

22) 門檻：문지방, 門限이라고도 부름.

23) 硃砂：丹砂라고도 불리는 광체가 나는 붉은 돌로 의학적으로서는 鎮心劑도 사용되기도 한다.

24) 天麻：藥用 식물名.

25) 青芝：「瑞草」라고도 불리는 植物名으로 藥用하긴 仙을 얻는다는 藥草이름.

26) 牛蒡：牛溲 또는 牛遺라고도 불리우는 藥用 植物名.

27) 馬勃：止血用으로 쓰이는 藥用 植物名.

28) 破鼓皮：헤어진 북가죽. 하치얇은 것이기만 痔瘻害를 治療하는 藥材로 사용.

散的有好處，超脫過人的算英傑；比較長短，量才錄用，這是宰相的方略呀。從前孟軻好辯²⁹⁾論，孔子的道因此昌明，可是他遊遍天下，奔走到老也沒人用。荀卿守着正道³⁰⁾，發揮偉大的議論，爲了逃避讒言到楚國去，最後被罷逐死在蘭陵³¹⁾。這兩位大儒，說出話來就是經典，一舉一動都可以效法，超過常人，高到聖人的造詣，可是他們在世界上的遭遇怎麼樣呢？現在先生學業雖然勤勉卻沒有繼承道統，言論雖然多卻不中肯，文章雖然奇特卻不適於用，行爲雖然端正卻沒有多少人知道。尙且每月用公家的薪水，每年費官倉的米，兒子不會耕田，妻子不會織布，自己騎着馬·帶着人，安逸地坐着吃飯。跟着常人，猥猥瑣瑣³²⁾，看些舊書，以便鈔襲。然而聖主並不責罰，宰相並不斥退，這不是幸運嗎？一動就被人毀謗，名聲也跟着大起來；處在閒散的地位，是本分應當的。至於談到財物的有沒有，計較官職的高低，忘了自己的器量有多麼大，指摘上司的錯誤，這正像袁問木匠爲甚麼不拿小椿做

29) 孟軻好辯：軻는 孟子的 이름. 孟子 滕文公 上 篇에 弟子인 公都子가 先生인 孟子에게 물기를 外部세상에서는 先生에게서 辯論을 좋아하여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辯論을 좋아하시는가 하고 물었더니 孟子께서는 내가 辯論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異端正說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퍼져 孔子의 道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득히 辯論하는 것이더라고 대답했다는 말에서 나온것임.

30) 荀卿守正：荀卿은 荀況, 戰國時代 趙나라 사립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尊敬하여 卿이라 號稱하여 荀卿이라 부르게 되었다. 孔子를 崇仰하여 數萬字에 달하는 冊을 著述하여 孔子의 正道를 지켰다.

31) 蘭陵：戰國時代 魯나라의 都邑으로 지금의 山東省 嶧縣 동쪽에 있다.

32) 猥猥瑣瑣：鄙陋瑣碎的 뜻으로 「猥瑣」의 두자로 야패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柱子，罵醫師教人吃菖蒲³³⁾滋補，自己卻想用豬苓³⁴⁾來替代呢！」

33) 菖蒲：藥用植物名。

34) 豬苓：藥用植物名。

師 說¹⁾

韓 愈

古代求學問的人，一定有老師。老師是傳習道術，教授學業，解釋疑惑的人。人不是生來就知道一切道理的，誰能沒有疑惑呢？有疑問不去跟²⁾老師學習，他的疑問就永遠不能解決了。

比我年歲大的，他理解道術當然比我早，我也跟着³⁾他學；比我年歲小的，他理解道術也許比我早，我也跟着他

1) 師說：이 말은 論說文으로 師道의 重要性을 說明하여 스승은 따라 道를 배워야하는 所以를 해설한 글이다. 中國의 文體에서 「說」이라는 것은 즉 「解」나 「述」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義理를 해석하고 自身의 意見을 술퇴하는 것으로 「論」과 大同小異 하지만 論議보다 平易하면서도 詳細하게 說破하는 것을 主旨로 하는 文體에 속한다. 節은 法이요 範이니 배우지 않으면 功승과 다름 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이란 빈드시 스승을 따라 道를 배워야하는 것이니 節은 道 바로 그것이므로 地位의 貴賤이나 年令의 大小에 구애없이 지켜져야 하는 데도 當時 唐代의 人情이 浮薄하여 귀천과 年令을 가리게 되어 韓愈는 이를 우려하고 流俗의 弊를 풀기 위해 比喻의 形式으로 이 글을 지었으며 韓非子의 內, 外儲說以來 「說」로서는 代表的인 글로 꼽히고 있는 글이다.

2) 跟：여기서의 「跟」은 「向과 같은 뜻으로 「~에게(서)」 또는 「~로부터」의 뜻이다. 例：「我跟他學了英文」.

3) 跟着：~을 따라(서). 例：「跟着他唸」.